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우리의 몸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가장 앞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눈과 손이다. 외부를 향하는 감각과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몸을 향해서도 눈과 손은 참 다양한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눈도 손도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있다. 바로 등이다. 거울이 없이는 자신의 등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유연하다 해도 등의 모든 부위를 다 만지기는 어렵다.

산이 위아래로 포개진 모양을 지닌 간괘(艮卦)는 산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침'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몸의 각 부위를 그침의 장소로 들어서 비유로 설명했다. 발, 종아리, 허리, 가슴, 입. 어디에서든 그쳐야 할 때 그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친다는 게 실제로는 쉽지 않다. 욕망이 생기고 나면 그칠 순간을 알기도 어렵고 단행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등에서 그치면 허물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등은 보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욕망도 없는 곳이다. 따라서 아무런 근심도 없이, 강제로 하지 않아

등에서 그친다는 말

도 자연스럽게 그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그침을 모르고 질주하는 이유는 눈과 손이 앞서기 때문이다. 눈과 손은 가장 능동적이고 민감하며 욕망이 큰 곳이다.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 우리의 눈과 손이 온통 집중되는 곳은 스마트폰이다. 현실의 세계와 매우 닮았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그곳에 펼쳐져 있다. 거기에도 친구가 있고 성취가 있고 욕망이 있고 또 하나의, 혹은 여럿의 자아가 있다.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현실의 관계들은 여전히, 아니 더 심각하게 뒤떨어져 간다는 점이다. 한없이 확장되어 버린 욕망에 몸과 마음을 맡겨버린 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칠지는 이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다.

고려 말의 학자 목은 이색은 세 칸짜리 작은 별실에 지지당(知止堂)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고부가 다투고 부자가 상쳐 주며, 형제가 싸우고 친구가 반목하니. (중략) 모든 화의 근원은 자기 욕망 때문이니 그 욕망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욕망은 먼저 같고 마음은 거울 같아, 먼저만 제거하면 거울 금세 밝아지네." 각자의 눈을 가린 욕망만 제거하면 본래의 깊은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므로 마음을 고달프게 하며 다투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려면 "생각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침의 경계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문제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政

事)를 도모하지 말라"는 공자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학자들은 경제제민(經世濟民)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아 왔다. 성호 이익은 "관직에 없으면서 국정에 간여한다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평소에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면 정사를 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국정의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평생 골몰했다. 생각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분을 넘어서는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말을 그 지위가 아니라 논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송대의 학자 정이는 말했다.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치지 못하는 것은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에서 그치는 것이 그침의 방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치니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욕망이 없다. 그래서 그 그침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없으므로 그칠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자리를 위해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치와 역할을 무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감각도 운동도 없는 등을 동원하여 그침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침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침이 더욱 어려워진 오늘, 잠시 눈과 손을 거두고 나의 욕망마저 이르지 못하는 등을 떠올리며 그침을 생각해 볼 일이다.

청춘 특특

후회를 다루는 법



박보경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3년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어떤 때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실패나 실수로 인해 지나간 것들을 돌이키고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또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망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후회를 제대로 다루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이다.

후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후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만,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후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소셜 '인간 실격' 속 주인공인 요조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과거의 실수와 후회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고 욕했다. 요조의 내면에는 불안, 고통, 혼란, 절망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곤 했고,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그를 실격된 존재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현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요조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와는 결이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경쟁과 성공이라는 가치가 강조돼, 이에 대한 강한 욕구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쩌면 요조와 비슷할지도 모를 것이다. 사람은 마음이 낙담하며, 자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남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다 보면 낙담해질 수밖에 없다. 절대 자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책하지 않아야 한다. 늘 이 부분을 기억하며 자신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긍정의 말로 다독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후회에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후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배움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놓아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지속적인 노력과 배움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간 실패나 실수에 대한 후회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다음번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면, 분명 우리는 후회 없고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여성의 몸, 표적이 되다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낳는 몸으로 태어난 여성은 생략적으로 몸이 굴러다.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며 시시때때로 움직임에 제약을 받고, 쾌락을 채 알기도 전에 도구로, 대상으로 내몰리며 성은 방어의 대상쯤으로 자리매김되기 일쑤다. 게다가 출생률을 문제시하는 사회에서 낳지 않는 여성의 몸은 비난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일까? 최근 한일 여성작가들의 소설에는 여성의 몸을 조명한 글쓰기가 부쩍 눈에 띈다.

몸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대표적이다. 작가는 이성의 언어가 아닌 여성의 몸을 모티프로 육식으로 심볼라이즈된 남성 중심주의 질서의 전복을 꾀한다. 주인공 영혜는 아이를 생산하지 않은 전업주부로, 그녀의 일터는 부엌과 그 주변이다. 특히 부엌은 조리 공간으로서 생명체의 지속이라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두 가지의 특성을 띤다. 하나는 식재료를 다양으로 장시간 보관한다는 일반적 기능이며, 그 두 번째는 식재료가 오로지 남편의 식성을 고려한 육식 재료 중심으로 채워지고 운영된다는 특수한 기능이다. 따라서 자연스레 영혜의 몸도 육식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영혜가 급기야 육식을 채식으로 바꾸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다. 그녀의 의지는 집요하고 행동은 치밀하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몸에서는 인간의 피가 제거되고 식물로 환생한다. 그 후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그녀는 단죄되고 그 최후는 참혹하다.

기실 육식의 이면에는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 자리 잡고 있는 퇴행적 나르시시즘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동물의 학살에는 철학적인 정당화가 자리하고 있다. 서구 철학은 타자로서의 여성, 야만인, 노예들을 동물로 등치해 왔다. '낳' 것의 생' 만을 영유하는 이런 타자들은 정치 공동체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정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동물의 생으로 타자화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신의 속성인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에게는 불멸의 영혼, 의식, 언어, 반성적인 사고가 없으므로 동물의 죽음은 정당하다는 오류를 범한다.

한편 일본의 여성작가 가와카미 미에코는 '여름의 문'(2022)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여성의 '낳는 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소설에는 모자가정의 10대 소녀, 미혼모인 40대 엄마, 비혼주의자 30대 이모 등 세 명의 여성으로 이뤄진 모계 가족이 등장한다. 어느 여름날 마키코는 후스타시로서의 자신의 몸의 상품성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방 확대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유방 변형의 원인으로, 아이를 낳은 점과 모유 수유를 든다. 아쉽게도 생명체를 얻었을 때의 희열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 얻게 되는 일체감 등 경험에 의해 축적되었을 감각을 가시화시키지는 못한다.

'여름의 문'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란(卵) 퍼포

먼스다. 사춘기 딸의 필담 노트에는 소녀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몸, 특히 초경이나 생리, 난자 등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소녀는 "만약 나도 생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몇 십 년이나 매달 가랑이에서 피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가 책에서는 생리를 너무 좋게만 써 놓았다."

요전에도 학교에서 이동할 때 누군가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식의 말을 했다. 단순히 거기에서 출혈을 했으니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자로서 생명을 낳아야 한다느니 하는 그런 거창한 기본이 드는 것은 어째서일까? 하고 의문을 표하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스스로를 몸속에 가두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문제의 논점이 여성 몸의 특수성이라 여겨졌던 '낳는 몸'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독자에게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녀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 '양손에 계란을 들고 그걸 동시에 헹개 내리쳤다. 겹대기가 주위에 흩어졌다. 미도리코는 티셔츠 목둘레선, 안면엔 흰자가 걸터지고 갓노란 덩어리가 무늬가 되어 곳곳에 묻은 채 서서, 지금까지 내가 들은 목소리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울고 있었다.'

엄마와 딸이 격하게 계란을 깨는 이 장면을 클라이맥스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여름날의 불꽃놀이하는 무기한 연기되고, 결국 낳는 문제는 자신의 의지로 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처럼 한일 여성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성의 몸이 표적이 되어 온 작금의 현실을 문제시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社說

날개 꺾인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힘 모아야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여파가 컸지만 국내 국제공항 중 운항 편수가 가장 적어 대합실도 활주로도 텅텅 빈 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4만 6249명에 불과해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9년 89만 6631명의 5%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최근 6년간 누적 적자만 930억 원에 달했다.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선 승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국제선마저 항공사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기편 운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국내선만 남아 있는 광주공항의 206만 862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 1002만 명 중 88%, 청주국제공항은 317만 명 중 99%가 국내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감안하면 무안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광주공항 국내선을 이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에서 불과 140여 km 떨어진 전북 새만금에 2029년 또 다른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수년 내 치밀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안공항은 폐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무안공항 경우와 활주도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안국제공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무안군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처럼 광주 민간 공항과 공공항의 동시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과 물류 이동의 거점인 국제공항은 관광과 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광주-전남 발전의 새 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공 공항 이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무안국제공항의 비상을 위해 상생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 저변 확대 대책도 함께

광주시가 전문 예술 극장인 '오페라 하우스' (가칭) 건립을 추진키로 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산과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1년 동안 건립 규모, 위치, 기능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건립 부지로는 옛 신양파크호텔 일대를 비탈려 하여 고려 살피고 있다.

시는 오페라 하우스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오페라 하우스 건립은 수도권에 비해 척박한 공연-예술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회관이 대·소극장을 통틀어 2000여 석 규모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오페라와 뮤지컬 등 대형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에겐 제한이

있다. 다른 시도들이 특정 장르의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추세도 감안됐다. 부산은 2025년 국제아트센터, 2026년 오페라 하우스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대구는 2003년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해 20년째 운영 중이다.

광주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 예술극장 건립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공연장을 건립해도 오페라와 뮤지컬 등을 즐길 수요층이 없거나 공연을 선보일 지역 예술단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시는 지역 예술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계기로 공연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민과 예술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과 비전, 품위와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상대 후보를 둘러싼 각종 네거티브 공세만이 판을 쳤다. 그럼에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이 전개되며 거대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더 공고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덕분에 최선을 뽑는 행보만 고민보다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덜 나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만 곤욕을 치렀다.

비호감 대선이 0.73% 포인트(24만 7077표) 차이로 초정전 결과를 낳으면서 후유증은 사회

반영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 여야 후보들의 공동 약속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를 다시 꺼내 들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면 전환용 퓌스'라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약 파기론'을 제기하며 여권에 연일 맹공을 가하는 등 5·18 정신만 정쟁에 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정쟁에 여야 거대 정당들의 호감도는 30%대 바타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비호감도는 과반을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무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 모두 0.73% 포인트 차이에 담긴 '반성과 성찰'의 함의를 오독하면서 정쟁의 일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승리에 취한 여권과 쇠신을 잊은 거대 야당이 충돌하면서 민생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소통이 안 되고 사고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물어뜯는 공격성을 보이는 '좀비'(zombie)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당중' 비율은 30~40%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 높다. 저조한 투표율 등 정치적 역동성 상실은 국가적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모든 민주당의 사회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적 외면보다는 깨어 있는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 참여를 되새길 시점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비호감 총선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publication details.